



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는 4일 전 회장들을 초청해 교협 사업 계획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. 오른쪽 줄 앞 첫째가 회장 장동신 목사. 정창수 목사가 식사 기도를 하고 있다.

## 뉴저지교협, 전 회장들에 사업계획 설명

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(회장 장동신 목사)는 전 회장들을 초청해 교협 사업 계획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.

팰리세이즈파크에 있는 일식당 ‘도시 어부’에서 4일 정오에 시작된 뉴저지교협 전 회장 조정 모임에는 정창수사, 정성만, 이병준,

유재도, 김종국, 윤명호, 흥인석 목사 등 전직 회장들과 뉴저지교협의 임원들이 함께 했다.

회장 장동신 목사는 “1년에 500 달러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는 20명의 이사 영입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, 현재 18명의 이사를 영

입했다”고 보고했다. 장목사는 또 “이사회의 협조를 얻어 성탄절 즈음에 작은 규모의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 부부를 초청하여 위로하는 친지를 베풀려고 준비하고 있다. 날짜와 장소가 정해지는대로 공지하겠다”고 밝혔다.

〈기사 · 사진 제공=복음뉴스〉